

‘공사물량 증대’ 전국 건설기업 체감경기 연중 최고

올 6월 CBSI 79.4 집계

전국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공사물량 증대효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4.6포인트 상승한 79.4로 집계됐다. 이는 올 1월(72.1) 이후 5개월 만에 70선대에 진입한 것으로 연중 최고치다. 전국 CBSI는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된 올 2~5월 녀 달간 60선에 머물렀다. CBSI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일반 건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를 조사한 수치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비관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건설공사 발주가 점차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수 회복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CBSI가 기준선보다 낮은 데다 종전의 경기악화가 심했던 데 따른 지지효과도 반영돼 완전한 회복세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지수 자체가 장기 평균선인 80선에 미치지 못해 건설경기가 양호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인제 성보종합건설 장학금 기탁 인제읍에 있는 성보종합건설(대표: 안남근)은 7일 인제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인제 성보종합건설 장학금 기탁 인제읍 소재 성보종합건설(대표 안남근)은 7일 군청을 방문해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코로나 추경’에 동서고속철 예산 90% 깎였다

동해선 전철화·동해항 개발 등
도내 주요 SOC 예산 대폭 삭감
계획변경 불가피 사업 차질 우려

정부가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 등 도내 주요 SOC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도내 SOC사업 조기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정부제3차 추경에 따르면 도내 SOC사업의 경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사업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사업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의 올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액 100억원 중 90

억원이 삭감됐다. 당초 도는 이월액 192억원과 올해 예산액 100억원을 합쳐 136억원의 기본설계비와 기타 용역비 등을 충당하려 했으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은 총 연장 93.74km로 2021년 착공을 시작해 2026년 완공이 목표다.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2조 2840억원으로 추산됐다.

동해선(포항~동해 178.7km) 전철화 사업 역시 올해 예산 225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11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총 사업비 4869억원 규모로 환동해권 국가기간 철도망 완성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노

선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한 동해북부선(강릉~제진·110.9km) 노선과도 연결된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경북과 강원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업비 적기 확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기본설계 9월 완료, 12월 착공에 따른 공사비 이월 예상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올해 총 예산만 1874억원에 달하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역시 해상기상 악화로 인한 방파제 안전 축조 공정 지연 등을 이유로 220억원이 삭감됐다.

도 관계자는 “도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삭감이 이뤄졌지만 사업 추진에 큰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원 kdpmw@kado.net

물량증가에 건설 체감경기 소폭 개선

6월 CBSI 79.4로 14.6p 상승

건설공사물량증가에 힘입어 건설업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동안 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걸었던 탓에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에 따르면 지난달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79.4로, 전월 대비 14.6포인트 상승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올 들어 CBSI는 3월 59.5를 기록한 이후 4월과 5월 각각 60.6와 64.8로 오르는 데 이어 지난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CBSI가 3개월 연속 오른 것은 공사물량 상황이 좋아진 데다, 통계적 반등 효과가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부 BSI를 살펴보면 신규공사 수주 BSI가 87.3으로, 전월보다 18.0포인트 상승했고, 수주 잔고 BSI도 77.4로, 10.1

포인트 올랐다.

자금조달 지수는 6.8포인트 상승한 75.8, 공사대수금 지수는 7.4포인트 오른 88.0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기업 BSI가 78.6으로, 전월보다 20.3포인트 올랐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81.8, 77.8로, 4.5포인트, 19.5포인트 상승했다.

박철한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개선됐다”며 “CBSI가 장기간 부진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로 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수 자체가 기준선 미만으로, 장기 평균선인 80선에도 미치지 못해 건설경기가 양호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달 지수는 전월 대비 4.7포인트 상승한 84.1로 전망된다.

건설연은 공공공사 발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달에는 흑서기 공사 감소로 인한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경남기자 knp@